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30)이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뉴욕 시티 필드에서 벌어진 뉴욕 메츠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류현진, 50일 만에 승리 시즌 4승

뉴욕 메츠와 경기 선발 등판 7이닝 8K 무실점 '완벽투'

류현진(30·LA 다저스)이 2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선보이며 '괴물'의 면모를 되찾았다. 류현진은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주 플라밍의 시티 필드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1개의 안타만을 맞고 메츠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2013년 이후 한 경기에서 안타 1개만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뷔 후 유일한 구원 등판이었던 5월 28일에도 4이닝을 소화하면서 2개의 안타를 내줬다. 지난달 31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전성기적 시절의 모습을 되찾은 류현진은 2경기 연속 패투를 선보이면서 시즌 4승(6패)을 수확했다. 올 시즌 뉴욕 빈약한 타선 지원에 힘겨운 승부를 펼쳤던 류현진은 이날 풍족한 타선 지원 속에 지난 6월 18일 신사네티 레전드 이후 50일 만에 승리를 품어 안았다. 지난달 25일 미네소타 트윈스 5회부터 이날까지 15이닝 연속 무실점 투구를 이어간 류현진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3.88에서 3.53으로 끌어내렸다. 류현진은 이날 최고 시속 92.2마일(약 148)에 이르는 직구에 컷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를 고루 섞어 던지며 메츠 타선을 요리했다. 특히 오른손 타자 몸쪽으로 몸쪽으

로 파고드는 시속 80마일 후반대의 컷 패스트볼이 위력적이었다. 96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66개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넣었다. 삼진을 무려 8개나 속아냈고, 볼넷을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 3회말 아메드 로사리오부터 7회 윌머 플로레스까지 15명의 타자를 연속으로 범타 처리하면서 견고한 투구를 선보였다. 1회초에만 3점을 몰리며 기선을 제압한 다저스 타선은 3회에도 2점을 추가하며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다저스는 1회초 2사 2, 3루에서 로건 포사이드, 오스틴 반스가 연달아 적시타를 날려 3-0으로 앞섰다. 류현진은 2회 선두타자 플로레스에 볼 3개를 연달아 던지며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렸다. 그러나 직구 스트라이크와 파울로 풀카운트를 만든 류현진은 시속 92.2마일(약 148km)짜리 직구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넣어 삼진을 속아냈다. 류현진은 커티스 그랜더스, 호세 레예스를 잇따라 외야 뜰공으로 처리하고 이닝을 마무리했다. 다저스는 3회 무사 1루에서 저스틴 터너가 우중월 투런포를 직렬해 5-0으로 달아났다. 류현진은 3회 선두타자 트래비스 다노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다. 그러나 로사리오, 스티브 마츠를 연달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아웃카운트를 늘린 류현진은 마이클 콘포토에

게 커브로 2루수 앞 땅볼을 유도해 위기가 이닝을 마쳤다. 류현진은 4회 선두타자 아스트루발 카브레라에게 컷 패스트볼 3개를 던져 3구 삼진으로 속아냈다. 이어 요네이스 세스페데스에게 커브로, 플로레스에게 슬라이더를 던져 유격수 앞 땅볼로 잡아냈다. 5회 선두타자 커티스 그랜더스와 풀카운트 승부를 벌인 류현진은 컷 패스트볼로 1루수 앞 땅볼을 유도했다. 이어 호세 레예스를 삼진으로 처리한 류현진은 트래비스 다노에게 포타시 컷 패스트볼로 내야 땅볼을 이끌어내 이닝을 깔끔하게 마쳤다. 류현진은 6회를 공 5개로 끝냈다. 7회 선두타자 카브레라에게 초구 커브로 3루수 앞 땅볼을 유도한 류현진은 세스페데스와의 맞대결에서 볼카운트 2BBS 상황에 커브를 던져 포타시 내야 땅볼로 처리했다. 다저스는 8회 코디 벨런저의 투런포로 7-0까지 달아나며 류현진의 승리에 사실상 해기를 박았다. 류현진은 8회부터 마운드를 토니 시그라니에게 마운드를 넘겨며 임무를 마쳤다. 다저스는 9회 야시엘 푸이그의 볼넷과 크리스 타이러의 적시 3루타로 1점을 추가, 8-0으로 앞서며 승부를 갈랐다. 최근 4연승을 질주한 다저스는 79승(32패)을 따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질주했다. /김민근기자

김인경, LPGA '브리티시 여자오픈' 우승

첫 메이저 우승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 데뷔 11년 만에 통산 7승

김인경(29·한화)이 링크스 코스에 비바람을 뚫고 데뷔 11년 만에 생애 첫 메이저 대회 타이틀을 품어 안았다. 김인경은 7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파이프 킹스밴스 골프 링크스(파72·6697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4번째 메이저 대회 '닉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총상금 325만 달러) 최종일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1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김인경은 조디 유이트 세도프(잉글랜드·16언더파 272타)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의 주인이 됐다. 북해 바다의 링크스 코스답게 빗줄기가 굵어지며 하늘이 지기를 반복했다.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였다. 변화무쌍한 기상조건 속에 2위에 6타 차 앞선 단독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몰입한 김인경이지만 앞선 라운드 동안의 경기와 달리 고전했다.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주춤하는 사이 LPGA 투어 우승 경험이 없는 세도프가 줄 버디를 성공시키며 맹렬히 따라붙었다. 김인경이 4홀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세도프가 코스레코드 타이 기록을 작성하며 2타 차 2위로 먼저 경기를 마쳤다. 우승에 대한 압박감과 2위와 타수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흔들릴 법도 했지만 김인경은 무리하지 않고 남은 홀을 지켜내며 타수 차를 유지했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마침내 생애 첫 메이저 정상에 차지했다. 둘째 날부터 리더보드 최상단을 차지한 김인경은 '무빙데이' 2위와 격차를 크게 벌인 것이 우승으로 가는 발리며 정상을 향해 거침없는 질주를



계속했다. 까다로운 링크스 코스에서 대회 기간 동안 보기를 3개만 기록할 정도로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2007년 LPGA 투어에 데뷔한 김인경은 데뷔 11년 만에 통산 7승을 생애 첫 메이저 우승으로 달성했다. 지난 2012년 메이저 대회인 '니비스 코 챔피언십'(현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마지막 홀 30cm 거리의 챔피언 퍼팅을 실수하며 우승을 놓친 아픔까지 한꺼번에 털어냈다. 지난해 10월 레인우드 클래식에서 6년 만에 통산 4승제를 달성한 뒤 최근 10개월 동안 메이저 포함 4승을 거두며 전성기를 활짝 열었다. 김인경은 우승 상금 48만7500달러(약 5억4800만원)를 추가하며 올 시즌 상금 100만 달러(106만8572달러)를 돌파했다. 상금순위도 19위에서 수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경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US여자오픈(박성현), 비라톤 클래식(김인경), 레디스 스코티시 오픈(이미향)을 포함해 4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12승을 합작하며, 남은 15개 대회 중 3승만 더하면 2015년 세운 한 시즌 최다승(15승)과 타이틀 이룬다. 최종일 5타를 줄인 신지은(25·한화)이 12언더파로 단독 6위에 올라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인경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냈다. 3라운드 코스레코드 타이 기록을 작성하며 선두 경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박인비(29·KB금융그룹)는 아쉽게도 최종일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10언더파 공동 11위에 머물렀다. '슈퍼꾸기' 박성현(24·KB하나은행)은 최종일 100%의 그린적중률을 기록하는 등 이번 대회 가장 좋은 4언더파를 쳤다.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로 김세영(24·미래에셋) 등과 나란히 공동 16위로 대회를 마쳐 유종의 미를 거뒀다. /김민근기자

女 배구, 아시아 정상 위해 '출격'

한국 여자 배구가 아시아 정상을 향해 다시 땀을 흘린다. 홍성진 감독이 이끄는 여자배구대표팀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제19회 아시아 여자배구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필리핀으로 떠났다. 지난달 31일 끝난 2017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에서 2그룹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은 짧은 휴식 후 재차 소집돼 필리핀 원정길에 올랐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한 차례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 열

린 2015년 대회에서는 김연경(상하이)을 앞세워 14년 만에 결승 무대를 밟았지만 주렁이 버틴 중국에 패했다. 총 14개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베트남, 스리랑카, 뉴질랜드와 C조에 묶였다. 김연경, 김희진(IBK기업은행), 박정아(한국도로공사), 양효진(현대건설) 등은 그랑프리 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친다. 김유리, 나현정(이상 GS칼텍스), 이



재은(KGC인삼공사)은 새롭게 팀에 합류했다. 한편 한국은 이번대회에서 그랑프리 때보다 1명이 늘어난 13명이 나서지만 여전히 14명의 엔트리를 채우지 못했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